

북한도 기능성 화장품 R&D 활발

신의주-평양화장품, 시설 현대화에 품목 다양화 ... 인삼·꿀 함유

북한이 기능성 화장품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외선차단제(선블록)는 물론 미백(화이트닝)제품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북한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 최근호(7월18일자)에 따르면, 경공업과학분원 <향료 및 화장품공학 연구소>는 소비자 취향과 요구에 맞는 질 좋은 화장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품종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현재 중점 연구대상이 “인민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료예방 화장품”이라고 소개했다. 여기서 치료예방 화장품이란 기능성 화장품을 뜻한다.

우선 경공업과학분원 내 화장품원료 연구실은 북한 주민의 체질과 특성에 맞는 자외선 방지 화장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서 큰 성과를 올렸고, 화장품 연구실은 천연성분의 <흰 머리칼 염색 및 예방 화장품>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

또 화장품 미생물 연구실은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맑고 희고 탄력 있어 보이게 하는 미백화장품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움직임은 화장품산업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월과 12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연이어 찾았고 2003년 8월에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시찰했다. 더욱이 “사회의 꽃인 여성이 화장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용모가 흐려지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품질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시설 현대화를 바탕으로 품목군 다양화와 품질 제고를 모색 중인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북한 화장품업계 양대산맥인 신의주화장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은 각각 <봄향기>와 <은하수>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내세워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중이다.

평양화장품 공장의 로션과 크림 제품은 인삼과 꿀 등 천연물질을 함유해 피부노화 방지나 주름 제거효과가 있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 역시 개성고려인삼 진액을 넣은 크림제품들을 선보이는 한편 비듬 제거와 탈모방지에 특효가 있는 두피 영양제도 생산중이다.

<화학저널 2004/07/29>